

산업부는 배터리 등 산업계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으며,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한 현장 소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.

<보도내용>

- 2026.2.6.(금). 아시아경제 「김정관 산업 장관, ‘보여주기식 행사’라도 가야한다」 기사에서,
 - “비효율적인 행정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“행사를 안 만들어야 정상같다”는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”,
 - “김 장관이 취임 후 현장을 챙기지 않은 대표적인 산업 분야가 배터리 아닌가 싶다”,
 - ““어떻게 하면 살아남을지 고민이 부족하다”라는 김 장관의 발언은 너무나 현실 인식이 결여된 것이다”,
 - “산업장관이 더 많이 있어야 할 곳은 책상이나 공방이 아닌 현장이다”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.

<정부 입장 >

- 산업통상부는 ‘가짜일 30% 줄이기’ 프로젝트의 일환으로, 형식적·의례적 행사는 과감히 줄이는 한편,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.
 - 이는 단순히 행사를 줄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, 보여주기식 행사보다는 실질적인 성과와 정책적 의미가 있는 현장 중심의 소통에 집중하겠다는 취지입니다.
 - 산업부 장관은 취임 이후 정부 정책과 산업 현장 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배터리를 포함한 산업계와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, 취임 이후 해외출장을 제외한 국내 근무일(108일) 중 기업인과

점점을 가지는 현장방문, 간담회, 회의 등 행사는 총 100회로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번은 기업인과의 소통 자리를 가졌습니다.

□ 기사에서 언급된 배터리 업계 조찬 간담회의 경우 의례적인 행사를 탈피하여 배터리사와 소재사 등 배터리 산업 전반의 위기 상황을 가감 없이 토론하기 위해, 1.5~1.7간의 중국 국민 방문 출장에서 귀국한 직후 가진 자리였습니다.

○ 또한 공식적으로 홍보되는 행사 외에 실·국장 등 실무진을 중심으로 실질적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현장소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.

□ ‘어떻게 하면 살아남을지 고민이 부족하다’는 발언은 최근 배터리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와 업계가 함께 활로를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,

○ 국내 대표 대기업 집단인 배터리 3사가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는데 앞서 내부 역량을 십분 활용하는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였습니다.

□ 정부는 배터리 산업을 대한민국의 핵심 미래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, 단순한 행사 참석 횟수보다 ‘경쟁력 강화’와 ‘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’이라는 본질적 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.

○ 수요창출, 기술개발, 기반구축, 정책금융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, 산업계의 캐즘 극복과 경쟁력 제고, 공급망 강화 등의 지원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

담당 부서	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	책임자	과 장	손용하 (044-203-5520)
		담당자	주무관	주승민 (044-203-5522)
	첨단산업정책관 배터리전기전자과	책임자	과 장	강규형 (044-203-4260)
		담당자	사무관	강봉조 (044-203-4266)